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2월 9일 (제98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잔치 끝에 도적 든다

우리 어릴 적에 결혼식이며 장례식은 그야말로 동네잔치였다.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동네가 하나 되어 떠들썩하게 치렀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모여 며칠씩 흥을 돋우며, 혹은 곡(哭)을 하며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가 끝나면 주인집에 낯고릇과 낯짓가락이 없어지고, 장독의 고추장, 된장이 슬며시 비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누군가 혼란한 틈을 타고 들어와 슬쩍 가져간 것이다. 물론 주인 측은 그간 애써준 동네 분들에게 미안해서 아무런 기척도 안했지만, 그 때부터 '잔치 끝에 도적 든다'니 조심하라'는 말이 생겨났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다.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안다. 악한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영적 잔치가 끝났다. 40일 작정기도를 마치고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를 동간의 집회를 마쳤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으니 마귀도 담비려고 작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 좀 쉬자.'가 아니라 더욱 기도해야 한다. 마귀로 하여금 들어올 틈을 쥐서는 안 된다. 포도원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면 여우가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잠깐의 방심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기도에는 원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음을 말씀하신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다. 왜? 마귀가 쉬지 않으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기를 부어야 한다. 바로 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다. 40일간의 작정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이 싸움은 승리를 예견했다.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집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참석률이 어느 집회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고 한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 11월 28, 29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는 '자리가 비좁아서 죄송하다'는 목사님의 양해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전날, 늦은 밤까지 총회장 목사님은 집회 장소에 나와 단의 규모부터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완벽을 기하도록 독려하셨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셨다.

마침내 저녁 8시 반, 신현명 목사의 사회

계 죄를 지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삶이 다시 에덴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귀의 일을 진멸하심으로 인간의 영·혼·육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 미국은 일본에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들은 세계 여론 운운하며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대로 원자폭탄은 투하되었고, 일본은 두 발의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서야 무조건 항복을 선언. 항복 문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차 대전이 종결되었고,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

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에게 원자폭탄을 날리듯,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아직 죄와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화도에서 나무나 하며 살던 강화도령, 그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로대신들이 자신을 궁으로 데려가더니 왕(철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가족과 함께 유배되어 강화에 살 뿐, 왕족혈통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니 그에 따른 권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강화도령처럼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세균'이라고 합니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2018년 11월 28~29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로 집회는 시작되었고, 총회장 목사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과 가난, 저주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잠24:5).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창1).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해 죄와 가난과 고통과 병 속에 살던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은 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 따른 권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뛰는 마

다만,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저도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하는 것, 병들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 고통을 주는 것은 다 귀신 짓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후 단 아래로 내려가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증명해보이셨다.

(다음 주에 계속)

기자 신묘수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주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외치시는 목사님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3:5~8)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어린 신앙으로 근근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함량미달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논리, 비합리적이라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성령을 못 받았거나 성령을 소멸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에 즉효약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증상들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도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 즉 전도해오는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함으로 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부어주는 물로 간신히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성장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들시들, 그저 간신히 살아만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생수의 근원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뿐더러 가지가 담장너머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3)고 하시며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정란은 품을수록 끓는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고, 받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조는 사람, 기도가 어렵고 전도가 어려운 사람, 다 성령을 못 받았거나 소멸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흘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으며,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에 (요15:26)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연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확실하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빌립에 의해 복음이 이

전해졌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보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바울이 가서보니 아무래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그들 말이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는데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세례를 주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천국에 가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 있지요? 단언컨대 그 사람 절대 천국에 못갑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사람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성령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주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 받은 교회입니까? 자고로 법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하는 법,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요즘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많고, 귀신추방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홍수를 이루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늘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는 제 사장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호4:6)’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목사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찌 성도들에게 성령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찌 영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볼로 목사도 신학에는 능했지만 성령을 몰랐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간신히 조루로 주는 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외주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야 생수가 솟아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명을 좇아 마른 뼈에게 ‘일어나라’고 하니 뼈들이 붙어 연락하고 거기에 살이 차고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 그제야 그들이 여호와 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

람들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기쁨과 감격이 넘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골 골짜기 빈 들에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자 말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름 붓듯 성령을 받으신 후에 나가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행10:38).

화환을 보지 말고 꽃씨를 보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조루로 물을 받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루로 물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 살기도 힘들습니다. 어느 순간 물이 말라버려 죽을 수 있습니다. 물이 넘쳐야 남도 나눠줄 수 있듯 성령 충만한 자는 옆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말라버린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요? 성령 충만한 자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내 안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의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 차고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소성케 되고, 강 가 좌우에는 먹을 것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바로 ‘성소에서 말미암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겔47:12).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물이 터지면 내 가정, 내 사회, 내 직장,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 대신 불만불평이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집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말이 아직도 나오니까? 진단하건데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겁니다. 즉효약 성령을 받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부디 성령을 구하고,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초연결사회의 아킬레스건

요즘 뉴스거리로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세미나, 토론, 연구 등에 관한 소식들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의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화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회자되고 있는 오늘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모 통신사의 지사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일부 지역에 며칠간 난리가 났다. 통신두절로 인한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가장 먼저 전화불통으로 인한 연락두절, 재난신고를 비롯한 비상연락망두절, 여기에 카드결제가 울 스톱되어 영업장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인터넷 망 두절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재앙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모든 시스템의 마비라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통신사 일개지사의 화재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과학적 진보라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기초 위에 서있는지 모두가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보다 더 극명한 사건이 있었다. 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는 세계 전자업체의 최첨단기술이 시현되는 기회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다. 올해는 특히 5G의 등장으로 더욱 첨단 서비스의 가능성을 한다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려고 각국 첨단기업들이 각축하고 있었다. 그런

데 참 어이없게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전시장 내에 약 30분간 정전사태가 발생했는데, 말 그대로 올 섯다운(All Shutdown), 전시장은 정전으로 어둠에 싸였고, 그 모든 첨단기기들은 고철덩어리로 서있을 뿐이었다. 이 두 사건으로 현대문명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전기와 통신임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목사님께 향후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지 질문했단다. “당연히 인간이다. 전기 내려버리면 다 무용지물이다.”

목사님의 극히 단순한 현답에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난다.

신나게 달리던 자율주행차가 인터넷 망 두절로 갑자기 흥기로 변할 지도 모를 장면을 상상해보라.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제아무리 5G시대라 큰소리 쳐도 그 근간이 되는 전기와 통신이라는 국가기간산업에 타격이 발생하면 오히려 통제 불능상태에 놓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기본과 원칙의 준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모든 분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상(理想)은 반드시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하늘의 별만 쫓아가는 땅의 지푸라기에도 걸려 넘어지는 법이니까.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 To Be Succeeded ::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이를 키우면서보니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란 걸 깨닫게 된다. 아들이 18개월쯤 되었던 어느 봄엔가, 감기가 심해지는 듯 하더니 열이 하루에 두세 번씩 오르내리기를 일주일쯤 넘겼던 것 같다. 동네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도 큰 차도가 없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기도가 목말랐던 나는 열이 펄펄 끓는 아들과 젖먹이 딸을 안고 교회로 갔다. 입구에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들어갔는데 아이의 상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보였다. 열이 나니 보채다 나중엔 얼굴이 허옇게 질리고, 급기야는 눈을 감고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졌다. 그런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열이 마지막으로 한번 오르고 내렸다.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뒷날 아이 신생아 때 다녔던 병원 주치의 선생님께 갔더니, 가슴에 청진기를 대자마자 곧바로 “폐렴이에요, 당장 입원시키세요.”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 지어주시면 집에서 돌보겠다고 말씀드렸

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아이가 없다하 시며 아이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다. 실력 있으신 그 선생님을 물론 신뢰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두워진 심령과 육체를 빛으로 비추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졌기에, 입원치료 대신 집에서 돌보는 것을 선택했다. 그 뒤로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음은 물론이다.

그랬다.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아팠던 아이를 낫게 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은, 나와 내 가족에게 복음 그 자체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복음의 행적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심령을 뜨겁게 한다. 참 생명, 참 빛, 참 진리는 오직 예수 이름뿐이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란 없다. 영·혼·육의 참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 기사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관련 프로그램 제작의뢰가 들어왔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일을 맡기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다. 방송국에서는 업체를 선정할 때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다 알아서 작성했고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프로그램 제작을 맡길 회사들을 찾다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글을 보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작의뢰를 했다는 것이었다. 총회장 목사님의 ‘하나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일이 들어온 것도 기쁘지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지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했다.

나는 어딜 가나 누굴 만나는 크리스천

임을 먼저 밝힌다.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과 언어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신뢰가 간다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다. 타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일을 맡겨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거래 취소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 나는 변명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방법대로 정도(正道)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주시기에, 우리교회가 ‘오직 예수중심’이기에 나는 오늘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중심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당당히 말한다.

이은성 성도



:: 삶이 있는 이야기 ::

답아가는 사랑

요즘의 한류스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신의 스타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을 때면 내가 꼭 묻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스타가 당신을 알까요?” 대부분 멧쩍은 웃음을 짓고는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저 자기가 좋으면 된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답아가야 할 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의 창조주이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구원자,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예수. 그 존재의 광대함으로 인해 인간의 시야로는 바라보기도 힘든 분이지만,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반짝이기만 하는 세상의 스타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각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놓으신 이유는 죄로 막힌 담을 걷어내어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기뻐하시기를 위함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인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홀로 그분과 마주하

여 열렬히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 행동 없이 말뿐인 사랑은 비극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만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6).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표현한다. 아가서의 애달픈 사랑노래와 호세아에게 음탕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가감 없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애틋게 하는 철없는 여인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단장에 열심을 내어보자.

이호은 사모

나를 바꾸는 습관, 67일의 기적!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다.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이고, 나쁜 습관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시며, 좋은 습관 갖기를 권고하십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과 운명이 바뀐다고 하니,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실 때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기로 매번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고착된 나쁜 습관을 버리기 힘들어 작심삼일에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JC 아카데미에서 이시대 목사님께서 습관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66일 동안 반복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거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한 인상적인 말씀이었고, 실천에 옮기려고 계획표도 만들고 이번에는야말로 꼭 성공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66일간 노력해보자고 결심만하고, 계획은 세웠지만, 결국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장이 있던 캐피탈호텔을 인수할 자가 나타나서 팔

리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그 소문이 ‘그저 소문일 뿐이겠지’ 하며 방심하고 있었는데,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총회장 목사님 사무실과 아버지, 어머니 사무실 옆에 있어 늘 보호받는 것 같아 안심하고 지냈는데, 막상 그 둥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게 두렵고 무서워졌습니다. 회사를 이전하면서 본토를 떠나는 심정으로 내내 두려움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변칙하고 총회장 목사님과 이시대 목사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습관이 성공의 열쇠이고,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실천하자!’

제가 실천에 옮긴 가장 첫 번째 습관은 아침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캐피탈호텔에서는 총회장 목사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아침예배에 부모님과 우리 회사 전무이신 삼촌이 항상 참석하셨기 때문에 늦잠으로 인해 아침예배를 빠져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저 혼자 되었다고 생각하니 떨컹 겁이 났습니다. 그 날부터 66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아침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67일째 되던 날, 그 날부터 폭포수와 같은 축복이 우리 회사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속 평

안과 성공에 이르는 확신이었습니다. 성공의 맛을 보고, 경험을 해보니 그 다음에 습관 고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씩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갈 때마다 땀뻘뻘하고 당당해졌고, 하나씩 좋은 습관을 갖게 될 때마다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는 우리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공장도 설립하고, 화장품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사업 영역도 확장하였습니다. 2017년까지는 소식도 없었던 수출의 물꼬도 터지게 되어 아직은 소량이지만 조금씩 천천히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곳에서 많은 발주가 들어오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사에서 인정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회사는 더욱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의 열쇠는 좋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67일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66일을 지키고 6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해보세요.

김은유 집사
ceo@edenique.co.kr

작심삼일 하지 않으려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은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이다.

왜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고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게 될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꾸준히 작심하는 사람들보다 작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하지만 작심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반복되는 실패에 따른 자괴감이나 패배감에 자존감마저 잃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표한 일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일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지속하기가 힘들어진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일주일에 책을 2~3권 읽어보겠다는 작심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여전히 집에 오면 TV가 나를 반기고 있고, SNS의 유혹, 게임의 유혹이 여전히 가득하다. 이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 읽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며칠 몇 주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엔 유혹들 앞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TV를 없애고, 주변 곳곳에 책들을 펼쳐놓고, 핸드폰을 비행기모드로 변경해놓고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목표가 적혀있는 글귀를 읽게 되면 성공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또 내가 세운 목표를 남들 앞에서 공표해 보자. “내가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어. 나는 이렇게 실행할 거야.”라고 선언하고 남들에게 알려보자. 실없는 놀이만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목표들에서도 위의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작심삼일이 아닌 작심만일을 성공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보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 날보다 좋으니 주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담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합니다.

장교 양성과정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육군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국 3천여 명의 동기들이 병과(군인을 그 임무에 따라 분류하는 것)를 선택하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시기였지요. 제가 1순위로 지명한 병과는 육군 병과 중에서도 극소수만 뽑는 인기 병과로, 매년 3천여 명 중 4명만 선발합니다. 직업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원하는 병과에 선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특히 입영훈련 기간에는 취침 시간에도 화장실 불빛에 의지한 채 시험을 준비하는 동기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 입영훈련 중 어깨부상으로 몇 과목의 실습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일이 있었기에 저의 종합성적으로 4명만 뽑는 병과에 선발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1지망은 대학전공과 관련이 있다면 선발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단 지원해보는 관례에 따라 저도 그 병과를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88체육관에서

의 예배’였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을 지교회 없이 지방에서 자라서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집회에 가거나 비디오와 말씀테이프를 통해서만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8체육관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마치 멀리 떠났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감격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88체육관에서의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했기에 군 복무기간 동안 은혜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88체육관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병과든, 어떤 부대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아뢰었습니다. 근무할 부대와 병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도한대로 88체육관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리의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순위로 지명한 병과에 선발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전국 3천여 명의 동기들이 모인 임관식 예행연습 때 저의 병과 마크를 보고 신기해하며 악수를 청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임관식을 마치고, 4개월간 병과교육을 받기 위해 병과학교로 갔습니다. 이전 해와 다르게 20명이 선발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20명 안에 선발된 것도 꿈같은 일이었지만, 매년 하던 대

로 4명만 선발했다면 저는 그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분명한데, 선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병과교육이 끝나갈 즈음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병과학교를 방문한 선발 담당 장교의 말에 의하면,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해서 선발인원이 늘어났는데, 수습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 저의 공로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진심을 아편 것뿐인데,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편27:4).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이 기쁨의 샘이 되고, 또 은혜의 단비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아비가 그 자녀의 얼굴을 살피듯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시편84:5~9).

정명관 성도
vic-777@naver.com

